



「1회용품 사용안하기 실천」에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임오년, 행운과 축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애쓰시는 기관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나라 공공기관을 끌고 계신 기관장님께 도움을 구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환경행정에서 특히 폐기물관리 업무가 좀 더 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과학소설에서나 가능했던 기술혁신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원의 남용과 환경오염의 폐해는 인류문명의 존속을 위해 기필코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거기에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한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자원을 좀 더 절약하고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전국에서 마구 버려지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1994년 3월 부터 종이컵, 비닐봉투, 합성수지용기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유통업계 등과 함께 '1회용품 줄이



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지금도 연간 38만톤에 이르는 1회용품이 단 한번 쓰인 채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난처한 것은 단속과 처벌로 이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구 버려지는 1회용품의 폐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비닐봉투와 합성수지용기 등은 매립지 용적을 많이 차지해 매립지 난을 가중시키고, 썩지 않아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합니다. 소각할 때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건강을 위협합니다.

다른 환경정책도 마찬가지지만, 1회용품 관련 시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협조하고 솔선 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제가 기관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부터 되도록 1회용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실천방안으로 회의나 행사에서 종이컵 등 1회용품 안쓰기, 환경친화적 도시락용기 사용, 기념품 제공시 장바구니나 재활용제품 증정, 구내매점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자판기에 다회용컵 사용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재활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이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시 반드시 재활용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중에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촉진 지침이 개정됩니다. 그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법 개정의 정신이 공공부문에서 먼저 결실을 거둘 때, 민간부문으로 순조롭게 확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재활용제품 구매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관장님의 건승과 기관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2. 1

환경부장관 **김명자** 드림